

아자이 역사민속자료관

이 민속자료관은 나가하마시의 동부에 있으며, 향토 학습관·이토히메관·대장간방·시치린칸 총 4 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건물은 정원과 잉어가 헤엄치는 연못 주위를 따라 있으며, 각각 디오라마, 모형, 체험 코너를 통해 에도 시대(1603~1867)의 생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토히메관’과 ‘시치린칸’은 전통적인 농가형 민가이며, 자료관의 목가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시치린칸’은 본래 1804 년에 건설된 민가이며, 1993 년에 이곳에 이축되었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다다미 방, 토방 현관과 부엌 등, 내부는 손길이 구석구석 닿아있습니다. 시 인정 지역 통역 가이드를 통해 사전에 예약하면 기모노 체험이나 오래된 탈곡기 사용 등, 다양한 전통과 농업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토히메관’은 1993 년에 세워진 농가 주택이며, 각 가정에서 행해진 양잠 작업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가하마의 아자이 지역은 고품질의 실크 산지로 유명하며, 관내에서는 누에 사육부터 고치에서 섬세한 실을 뽑기까지의 과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대장간’에서는 나가하마의 대장장이가 삽이나 팽이 등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어떻게 제조했는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옥 옆에 있는 근대식 큰 ‘향토 학습관’에는 16 세기에 이 지역을 통치한 아자이 가문의 역사에 관한 전시가 있습니다. 일러스트가 들어간 패널, 소지품, 등신대 디오라마로 한 가문의 흥망을 소개합니다. 특히 1573 년의 오다니 성이 무너질 때도 살아남은 마지막 성주 아자이의 3 명의 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